

산림치유시설 ‘국립나주숲체원’ 개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큰 몫...연간 10만여명 수혜 청정 블루자원 활용 ‘세계산림치유대회’ 준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림 치유 및 문화, 숲 교육을 선도할 국립나주숲체원이 12일 개장했다.

이날 나주시 경현동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도내 국유림 중 도심에서 가깝고 산림인프라가 구축된 금성산을 산림치유의 최적지로 발굴해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다.

금성산은 아름다운 산림경관과 함께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문화가 공존한 명소가 많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립나주숲체원으로 선정됐다.

국립나주숲체원은 금성산(나주시경현동 산40-3번지) 일원 58ha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총 200억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며, 체험센터와 대강당, 숲다원, 숲속의 집, 치유숲길 등 체험시설은 물론 숙박시설도 갖춰 맞춤형 산림치유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대상 숲크레이션(숲 탐방·레크레이션) ▲성인 대상

포레스트리(숲 해설·숲 체험활동) ▲가족·일반인 대상 숲나와라 뚝딱(숲 탐방·생태놀이) 등이 운영되며, 이밖에 목공예 체험, 다도체험 등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도 편성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전화(061-338-

8400)로 예약하면 되고, 내년부터 국립나주숲체원 누리집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늘 문을 연 국립나주숲체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에게 도내 산림치유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숲·정원·하늘·바람 등 청정 블루자원을 활용한 ‘2021세계산림치유대

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면서 “전남이 세계적인 산림치유의 본고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유의 숲 9개소와 자연휴양림 16개소를 운영 중인 전남도는 ‘2021세계산림치유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전남의 치유숲이 가진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12일 오후 나주시 경현동에서 열린 국립나주숲체원 개원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트라우마센터·국악원·관광센터 예산 확대”

양향자 의원, 국회 예결특위 질의서 정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광주 지역의 내년도 예산편성 확대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5·18 관련 예산 및 국립국가트라우마치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심리·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행안부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립광주국악원 설립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광주는 인구 150만의 광역도시로 유치원 때부터 고등교육까지 타 지역에 비해 국악의 교육비중이 40% 이상 높고, 광주국악협회는 연간 100회 이상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양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진도국악원은 교통 등 접근성이 열악해 전통문화 향유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광주국악원 신설로 공연 중심의 시민 참여와 체험형 국악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산업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지역관광 기업지원센터는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남 등 5곳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지난해 부산은 지역관광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관광기업 45개사를 입주시켰고, 각종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110명의 일자리도 만들어냈다”면서 “현재 전국에서 호남과 강원만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내년에 광주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비 15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오늘 김치경연대회...광주시, 온라인 중계

광주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광주 김치타운에서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와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광주세계김치대회는 전 과정 치러진축제에서 전국요리대회 중 유일하게 대통령령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가 13일, 김치의 세계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가 14일 각각 진행된다.

올해 광주세계김치대회는 전 과정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황애란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자연재해 쌀 감소 피해보상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쌀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일 농해수위 예산상정 상임위와 지난 9일 예산소위에서 피해보상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10월 8일 통계청 쌀 생산량 예상은 전년대비 3% 감소한 수준으로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는 태풍과 장마 등 자연재해로 농가에 따라 30%



까지 생산량이 줄었다는 게 현장의 증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영향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되풀이되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다면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계만이라도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신정훈 “교육부 특교세 13억7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2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교육부 특별교부세 13억7,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나주시남평읍 교원외 광남고등학교 내 체육관 증축사업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학교기숙사 옆 운동장에 880㎡ 규모의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학교 체육관이 갖춰지지 않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남평 광남고 체육관 증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련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용빈 “보훈처, 상임위 국방위 변경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원내대표는 12일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대로 정무위 소관으로 유지돼야 하며, 국회 운영위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독립·민주 유공자들의 처지와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단체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발의되면서 보훈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은



국방위가 포괄할 수 없고, 연관성도 떨어져 지금껏 보훈단체와 소통하면서 추진해온 보훈정책에 혼선만 줄 것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광복회와 4·19단체, 5·18단체 등 독립·민주 보훈단체들은 국회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 SNS 소통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빛나는 초선의원’ 선정에 이어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주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후 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 채널·네이버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



해 국민과의 정황활동을 소통하고, 국정감사 때는 질의내용 홍보를 위해 ‘주철현TV’를 개설하는 등 활발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 의원은 “앞으로 SNS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6 (화정동)